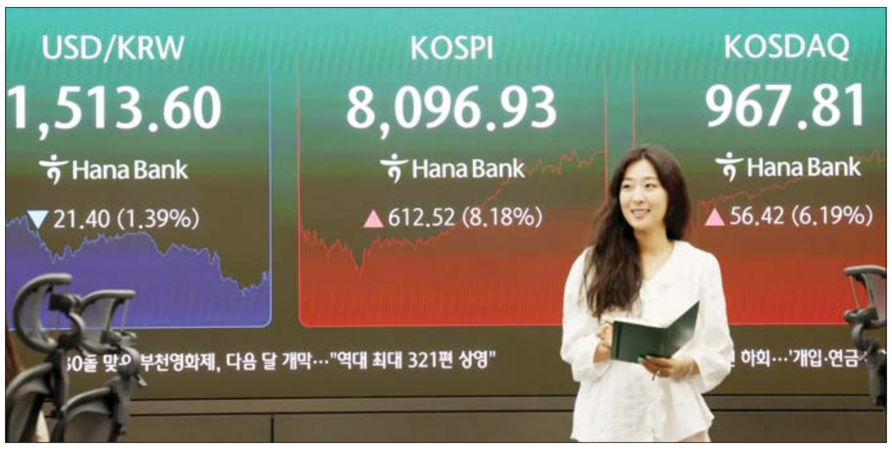
역대급 상승에 8000피 회복했지만… 공포지수는 사상 최고

공포지수 장중 91.23까지 치솟아
시장 과열·경제 심리 '동시 존재'
전문가 "빚투 줄이고 신중히 대응"



코스피가 전 거래일(7484.41)보다 612.52포인트(8.18%) 오른 8096.93에 장을 마감한 9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911.39)보다 56.42포인트(6.19%) 상승한 967.81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535.0원)보다 22.9원 내린 1512.1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시스

-5.54%, -8.29%, +8.18%. 최근 3거래일 코스피 등락률이다. 하루에도 수백 포인트를 오르내리며 극심한 변동성에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례적인 상황도 펼쳐진다. 보통 하락장에서 출현하는 변동성지수(VKOSPI)가 하락·상승장을 가리지 않고 치솟고 있다. 하락과 변동성이 큰 장을 예고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상당수의 전문가들은 "하락 신호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다만, 주가가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개인 투자자들이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신용거래융자 잔고가 급증하며 '빚투' 규모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불어난 데다, 공매도 선행지표로 꼽히는 대차거래 잔고가 늘고 있어서다.

◆코스피 역대 최대 상승폭 기록, '공포지수'도 최대

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는 612.52포인트(8.18%) 오른 8096.93으로 마감했다. 역대 최대 상승폭이다.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했다. 삼성전자는 전장 대비 8.97% 오른 32만2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SK하이닉스도 15.91% 급등한 221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날 SK하이닉스 상승률은 역대 최대다.

코스피가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지만 한국형 공포 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91.23으로, 전 거래일보다 14.60포인트(19.05%) 급등하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과의 전쟁이 발발한 직후 기록한 올해 전고점(83.58·3월 5일)보다도 높은 것이며, 거래소가 해당 지수의 공식 발표를 시작한 2009년 4월 13일 이후 사상 최고치다. 지수가 공식 발표되기 이전부터 수집된 VKOSPI 데이터를 보면,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10~11월 이후 장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스피 옵션 시장 투자자들이 예상하는 향후 30일간의 지수 변동성을 나타낸 지수다. 통상 하락장에서 지수가 상승하기 때문에 '공포 지수'라고 불린다. 미국 증시의 변동성 지수(VIX)가 S&P 500 지수 옵션을 근간으로 해서 시장 변동성을 반영하는 것과 비슷한 방식이다.

보통 '하락장'이 펼쳐지고 있을 때 이러한 변동성 지수들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통상 20~30 수준을 안정 구간, 50을 넘어가면 극단적 공포 구간으로 해석된다.

김지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한시적 효과라고 해도 반도체 고밸류에이션 부담, 유가와 중간재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누적된 상황인 만큼 6~7월은 변동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짚었다.

◆IMF·팬데믹 수준의 공포…시장 피로도 '극한' 증시

공포 지수의 상승은 코스피 옵션 시장에 참여하는 전문적인 참여자들 사이에서도 코스피 상승과 하락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개인 투자자들이 일부는 코스피 상승을 예상하고 삼성전자 등 대형주를 사들이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더 이상 추가 상승은 어렵다"고 보고 지수가 하락할 때 돈을 버는 인버스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하루에도 코스피가 급등락을 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이달 들어 지난 5일까지 코스피 일간 평균 변동률(코스피 지수의 일간 고가와 저가 변동 폭)은 3.9%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이 발발한 지난 3월(3.7%) 수준보다 높은 수치다. 최근 20거래일(5월 4일~6월 2일) 평균 4.2%에 달해 연초 평균(3.0%)을 훌쩍 뛰어넘었고, 증시가 급락했던 지난 5일 하루 변동률은 4%까지 치솟았다. 한 증권회사 관계자는 "지금은 투자자들이 흥분해 있는 상태"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코스피가 조금씩 꾸준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개인 투자자들이 장기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다. 반대로 코스피가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상승한 다음 등락만 반복하는 시장 상황이 이어지면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는 어려워진다.

전문가들은 빚투 증가와 공매도 확대, 변동성 급등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시장 과열과 함께 경계 심리도 커지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한다. 지난 8일 기준 신용거래융자 잔고는 37조7904억원으로 역대 세번째로 많다. 위탁매매 미수금 대비 반대매매금액도 1391억원을 기록했다. 이틀 연속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공매도 선행 지표인 대차거래 잔고는 8일 기준 166조1273억원에 달한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현대차·기아에 채권 더했다… 하나운용 ETF 상장

주식의 성장성·채권의 안정성 결합
DC형 퇴직연금·IRP 계좌 투자 가능

김승현 하나자산운용 ETF·퀀트솔루션본부장이 9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1Q 현대차기아채권혼합50 ETF 신규 상장 기자간담회'에서 상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하나자산운용이 현대차와 기아의 성장성에 채권의 안정성을 결합한 채권혼합형 ETF를 선보이며 피지컬AI 투자 수요 공략에 나섰다. 현대차그룹이 보스턴다이내믹스를 중심으로 로보틱스와 자율주행, 스마트 제조 영역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자동차를 넘어 피지컬AI 시대의 핵심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나자산운용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Q 현대차기아채권혼합50 ETF'를 신규 상장했다고 밝혔다.

이 ETF는 현대차와 기아를 각각 25%씩 편입하고 나머지 50%를 단기 국공채와 통화안정증권 등에 투자하는 구조다. 퇴직연금 감독규정을 반영한 2세대 채권혼합형 ETF로 분류돼 DC형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최대 100% 편입이 가능하다.

김태우 하나자산운용 대표는 "AI 다음 단계인 피지컬AI 시대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며 "현대차그룹은 보스턴다이내믹스를 기반으로 로보틱스 경쟁력과 실제 양산 체계를 동시에 갖춘 글로벌 피지컬AI 선도 기업"이라고 말했다.

상품 설명에 나선 김승현 ETF·퀀트솔루션본부장은 전날 현대차그룹 양재사옥을 방문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을 언급하며 "AI의 다음 물결은 모빌리티와 피지컬AI이며 지금이 현대차의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하나자산운용은 특히 퇴직연금 시장에서의 활용성에 주목했다. 현행 제도상 퇴직연금 계좌에서는 위험자산 비중이 70%로 제한되지만 채권혼합형 ETF는 해당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주식 노출 비중을 더 높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본부장은 "퇴직연금 계좌에서 70%를 일반 주식형 ETF로 채우고 남은 자금으로 현대차·기아 비중을 확대하려는 투자자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다른 주식형 ETF와 병행하면 전체 주식 노출도를 최대 85% 수준까지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증권 자동차담당 애널리스트인 장문수 연구위원도 참석해 현대차그룹의 피지컬AI 경쟁력을 설명했다.

그는 "현대차는 단순 완성차 업체가 아니라 제조와 로보틱스를 결합한 미래 모빌리티 기업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보스턴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에 대해선 현대차그룹의 대량 생산 능력과 제조 데이터가 강점이라고 진단했다. 장 연구위원은 "현대차그룹은 연간 800만대 이상의 생산 체계를 갖추고 있어 로봇 양산과 학습에 필요한 제조 데이터 확보 측면에서 경쟁 우위를 보유하고 있다"며 "향후 피지컬AI 성과가 가시화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밸류에이션 재평가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쟁사들이 현대차 관련 ETF를 잇달아 출시하는 상황에서 하나자산운용은 차별화 포인트로 '연금 투자자 맞춤형 솔루션'을 내세웠다.

/허정윤 기자 zelkova@

순자산 45억 있어야 60대 '1%' 자산가

NH證 100세시대연구소 리포트

60대 이상 가구가 자산 상위 1%에 들기 위해서는 최소 44억9000만원의 순자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가구주 유형별 순자산 상위 1% 가구의 자산 구조와 소득 특성을 분석한 'THE100리포트 125호'를 발간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통계청의 202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해 연령, 거주지역, 직업군에 따른 상위 자산가의 특징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자산 상위 1% 진입 기준은 연령이 높아질수록 크게 상승했다. 39세 이하 가구주의 경우 상위 1% 기준선은 13억1000만원이었지만 40대는 32억원, 50대는 34억5000만원, 60대 이상은 44억9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 가구의 평균 순자산도 39세 이하 20억9000만원, 40대 47억9000만원, 50대 56억7000만원, 60대 이상 78억3000만원으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했다.

젊은 고자산가들도 부동산 의존도가 높았다. 39세 이하 상위 1% 가구의 평균 총자산은 24억869만원으로, 이 가운데 거주주택이 11억1779만원, 거주 외 부동산이 7억5072만원을 차지했다. 전체 자산의 약 78%가 부동산으로 구성됐으며 금융자산도 4억2174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다.

거주지역에 따른 자산 격차도 뚜렷했다. 수도권 상위 1% 가구의 평균 순자산은 78억5000만원으로 비수도권 35억1000만원의 2.2배 수준이었다. 상위 1% 진입 기준 역시 수도권은 44억8000만원, 비수도권은 22억5000만원으로 두 배 가까운 차이를 보였다.

직업별로는 자영업자의 자산 규모가 근로자를 크게 앞섰다. /허정윤 기자

스페이스X, MSCI 조기 편입 유력

나스닥·FTSE 러셀도 편입 길 열어

MSCI, 나스닥, FTSE 러셀 등 주요 지수 제공 업체들이 잇따라 스페이스X의 조기 편입 채비를 마치면서 나스닥 상장을 앞둔 스페이스X에 대한 패시브 펀드의 수요가 예상된다.

MSCI가 8일(현지시간) 글로벌 스탠더드 지수에 대형 기업공개(IPO) 종목을 조기 편입하는 기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겠다고 확인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MSCI 지수는 전 세계 기관투자자들이 글로벌 주식 포트폴리오의 기준으로 삼는 대표적 벤치마크다. 추종하는 패시브 펀드의 운용 자산만 약 5조7900억달러(약 7952조원)에 달한다.

스페이스X는 오는 12일 나스닥에 상장된다. 회사 측은 기업가치 1조7500억 달러(약 2403조원)를 목표로 삼고 있다.

상장 시 유통 가능 주식 비율이 약 7%에 불과하지만, MSCI 지수 조기 편입을 위한 규모 및 유동 비율 기준은 무난히 충족할 것으로 로이터는 예상했다.

스페이스X의 최종 공모 규모는 11일 결정되고 다음날인 12일 나스닥 거래가 시작된다. MSCI는 거래 개시 후 10거래일 뒤 지수 편입이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나스닥도 이미 규정을 개정해 스페이스X, 앤트로픽 등 신규 상장 대형주의 나스닥100 지수 편입을 쉽게 만들었다. 나스닥100 지수는 애플·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기술주 100개로 구성된 지수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추종되는 지수 중 하나다.

지수 제공 업체인 FTSE 러셀도 신속 편입 규정을 통해 스페이스X의 러셀 지수와 FTSE 지수 편입 자격을 부여했다.

수조 달러 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패시브 펀드들이 이들 지수를 추종하는 만큼 스페이스X가 편입되면 해당 펀드들의 자동 매수 수요가 유발된다.

반면 S&P 글로벌은 수익성 요건 등 기존 기준을 유지하기로 하면서 스페이스X의 S&P 500 지수 조기 편입 가능성을 사실상 차단했다.

미국 대형주 500개로 구성된 S&P 500 지수는 미국 증시의 실질적 기준 지수다. 편입 요건으로 최근 4개 분기 연속 흑자를 요구하는데, 스페이스X는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신하은 기자